

몸과 마음 치유의 16시간 나비의 고향에서 친환경 씬터로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힐링 명소가 주목받고 있다. 힐링이 필요한 이들에게 친환경 명소, 전라남도 함평군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나비의 고향’ 함평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최근 청정 씬터로 탈바꿈하고 있다. 나비축제, 국향대전 등 굵직한 지역 시즌 축제 행사가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됨에 따라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것이다.

함평군은 ‘4·4·8 함평관광 프로젝트’를 내세우고 있다. 관광객이 숲에서 4시간, 바다에서 4시간을 보내고 8시간은 숙소에서 머무르도록 해 최소 16시간 이상 함평에 발길을 붙잡아 두겠다는 의미다.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사계절관광 프로젝트’를 통해 관광객이 잠깐 거쳐 갔던 코스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룻밤 이상 함평에서 묵게 하는 체류형 관광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여기에 집라인, 스카이워크 등 체험시설과 관내 숙박시설 확충에도 주력하고 있다. 함평에서의 16시간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주요 명소들을 소개한다.

걷고 쉬고...‘함평천지길’

함평에 도착했다면 가장 먼저 ‘함평천지길’을 둘러볼까. 엑스포공원 입구에 차를 두고 내리면, 걷기 좋은 길이 펼쳐진다. 이 길은 엑스포공원, 함평천생태습지, 화양근린공원을 잇는 6km의 도보길이다. 함평군은 기존에 조성돼 있던 정원, 산책로 등을 하나로 연결해 최근 테마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곳에선 2시간여 간 천천히 걸으며 산속의 숲길, 습지 생태길, 도시 공원길을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사계절 개화 시기를 달리하는 꽃은 물론 새소리, 바람 소리, 풀 내음 등 자연이 만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걷고, 숨을 쉬고 있노라면 신선놀음이 따로 없을 것이다.

영화 관람은 안전한 자동차 극장에서

해가 누엠틀엠틀 질 때쯤 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에 마련된 자동차 극장으로 가자. 함평 자동차 극장은 지난 1월 문을 연 따끈따끈한 신상 명소다. 개장 4개월 만에 누적 관람 차량 5천 대가 넘는 등 비대면 문화 향유 시설로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1992년 함평읍내 극장 폐관 이후 29년 만에 들어선 극장으로 군민에게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인터넷 사전 예매도 가능하다.

바다 가까운 한옥마을에서 휴식을

한옥마을에 자리한 숙소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자. 돌머리해수욕장과 인접해 있는 주포 한옥전원마을은 다양한 형태의 한옥이 한데 모여 있는 곳으로, 한옥 펜션과 민박 등 관광객을 위한 상업시설은 물론, 실제 거주하는 주민도 다수 있다.

주포한옥마을은 살짝 경사진 땅에 한옥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곳이다. 오르막길을 따라 올라갈수록, 한옥마을 아래로 펼쳐지는 바다 전경이 압권이다. 고즈넉한 숙소에서 하룻밤 편안히 쉬 후 아침에 돌머리 해안도로를 걷고, 함평의 명소인 해수찜에서 목은 피로를 풀어도 좋다. ♡

1 함평 자동차 극장 2, 3 함평천지길



함평천지 농·특산물

친환경
농업의 메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물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